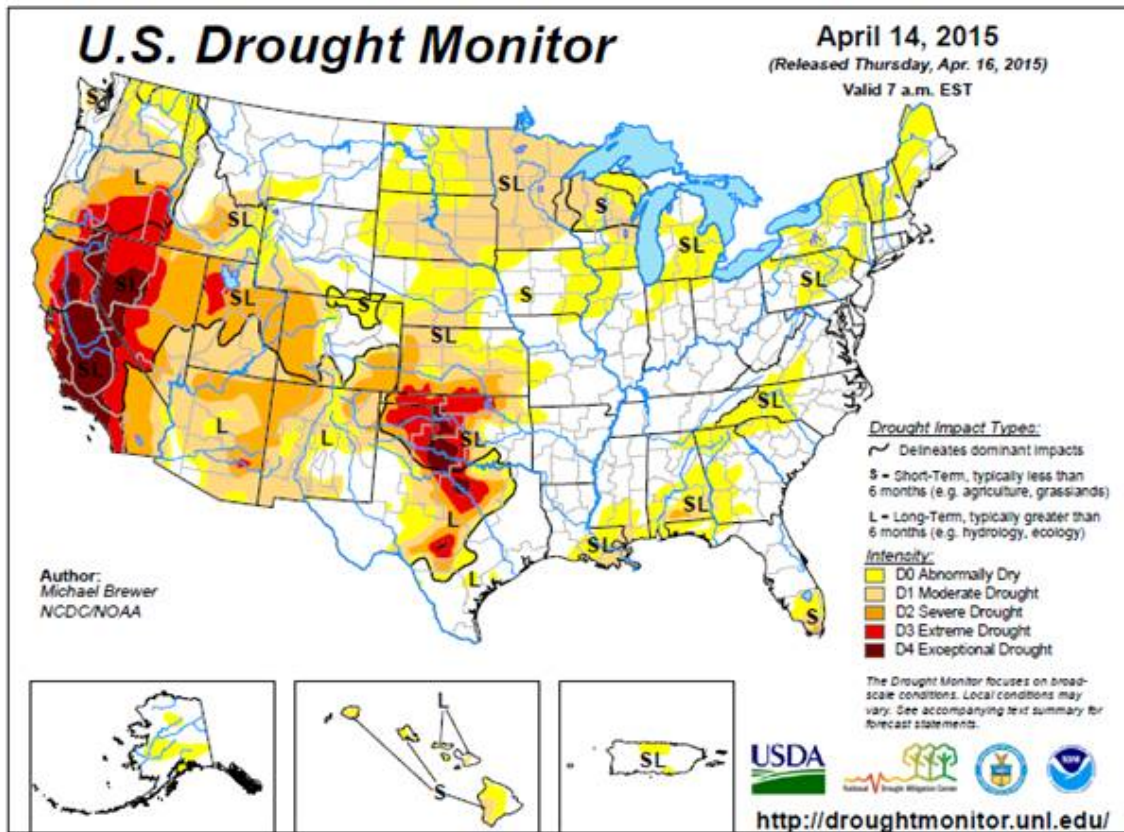


4월 2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16)

□ 미국 기후 현황(4/12~4/18)



국지적으로 심각한 뇌우를 동반한 비가 내려, 남부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야외 농작업 활동이 줄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일부 지역과 중부 걸프 연안의 경우 총 강수량이 4인치를 넘는 것은 흔한 상황이었다. 폭풍우로 인한 날씨는 서부지역으로 확장되어 중부와 남부 대평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빈번하게 내린 소나기와 뇌우는 가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목초지, 초원, 가을 밀 재배지역에 충분한 토양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네브래스카부터 남부 텍사스 지역까지의 경우 총 강수량은 1인치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따뜻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북부 대평원에서 북동부지역으로 팽배하였다. 따뜻한 날씨가 특히 중서부 지역에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기온은 대체로 평년대비 평균 8-14°F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서부 지역의 생산자들에게는 조기 파종 및 옥수수 파종과 같은 농작업이 허용되었다. 한편, 시즌 후기 발생한 폭풍으로 인해 서부 지역인 태평양 북서부와 록키산맥의 경우 눈이 내륙산간지역의 정상부근을 덮었다. 서부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타격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와 그레이트

베이신 지역의 경우 강수량은 봄과 여름철 수문관측을 변경하기에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 □ 농업 현황 요약(4/13~4/19)

전국적으로 평년과 비슷한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걸프 연안지역을 따라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강수량은 더욱 많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남동부 루이지애나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간 총 강수량이 7.5인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록키 산맥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경우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벨트의 대부분 지역은 한 주 동안 기온이 평년대비 평균 8°F 이상 높았다.

### ■ 옥수수

4월 19일 기준, 미국 전체 옥수수의 파종율은 9%p로 전년 동기대비 3%p 앞섰지만, 5년 평균 대비 4%p 늦은 수준이다. 서부 콘벨트 지역에서는 파종하기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캔자스, 미네소타, 사우스다코타 경우 5년 평균대비 파종율은 앞선 상태로 조사되었다. 일리노이,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2자리 수 파종율을 기록하였다.

### ■ 가을밀

4월 19일 기준, 가을밀의 출수율은 16%p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8%p 앞섰으며, 5년 평균 대비 다소 앞선 상황으로 나타났다.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지역에서는 출수율이 각각 29%p, 28%p인 것으로 기록되었다. 미국 전체 가을밀의 42%가 좋음/아주 좋음인 상태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주대비 동일하였지만, 전년동기 대비 8%p 더 나은 수준이다.

### ■ 면화

4월 19일 기준, 금년 면화 파종율은 8%p로 전년 동기대비 다소 뒤쳐진 상황이며, 5년 평균 대비 3%p 늦은 수준이다. 한 주 동안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각각 26%p, 25%p의 파종율이 기록되었다. 15개 관측 주 중에서 11개 지역의 경우 파종율은 5년 평균대비 늦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 쌀

4월 19일 기준, 금년 쌀 파종율은 32%로 전년 동기대비 다소 앞섰지만, 5년 평균 대비 10%p 늦은 수준이다.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지역에서는 5년 평균대비 파종율이 비슷하거나 다소 앞선 상태이었지만 대체로 관측 주를 기준으로 평년대비 파종의 진행상황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쌀의 출수율은 17%p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2%p 앞섰지만, 5년 평균 대비 6%p 늦은 상황이다.

## □ 세계 기후 현황(4/12~4/18)

■ 유럽: 따뜻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중부와 북부 유럽에서 야외 농작업 및 겨울 작물의 생육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으며, 남부 재배지역에서는 비가 지속해서 내렸다. 고기압으로 인해 맑고 따뜻한 날씨(평년대비 2-6°C가 높음)가 프랑스, 영국, 폴란드, 발칸에 형성되었으며, 가을밀과 유채의 생육을 촉진하였다. 또한, 봄철 곡물 파종과 사탕무의 파종이 중부와 북부 유럽지역에서 지연되지 않고 진행되었으나, 발틱주에서는 비(10-25

mm)가 내린 탓에 야외 농작업이 늦어졌다. 남부지역으로 갈수록, 소량 또는 적당량의 비(2-25 mm)가 내려 스페인 지역에서 출수단계에 접어든 가을밀의 관측이 긍정적으로 촉진되었다. 발칸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내린 강수량(10-25 mm)으로 인해 대체로 토양수분이 충분한 상태였으나 남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더욱 건조한 날씨로 인해 많은 양의 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구소련(서부): 중부 재배지역에서는 비가 내려 가뭄을 완화시켰고 남부지역에서는 토양수분의 정도가 좋은 상태로 유지되었다. 정지된 전선이 추가적으로 적당량에서 많은 양의 비(5-50 mm)를 우크라이나에서 남부지역 및 중앙 러시아 지역으로까지 내리게 하였다. 북부 우크라이나와 중서부 러시아에서는 비가 특히 반가운 상황이었으며, 가을 이후 계속된 가뭄과 결합된 최근 가뭄이 토양 수분을 고갈시켰고 가을밀에 대한 생육 조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다.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4°C까지 높았던 까닭에, 불가 지역에 남아있던 스노우커버가 녹았고 봄철 곡물의 파종과 기타 계절적 농작업에 용이하게 작용하였다. 한편, 소량 또는 적당량의 비(3-15 mm)는 남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자라고 있는 가을밀에 좋은 조건을 유지하게 하였다.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느리게 이동하는 태풍전선으로 인해 바람이 불고, 비(10-60 mm) 내리는 날씨가 벨라루스에서 북부 러시아 지역에 형성되었으며, 봄철 곡물의 파종작업을 지연시켰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지역에서는 넓은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재생산을 위한 겨울작물들에게 적당한 토양 수분을 유지시켜 주었다. 중국 북부 대평원 지역의 총 강수량은 대체로 10mm를 기록하였지만 가을밀에 필요한 좋은 상태는 유지되었다. 양쯔계곡에서도 유사한 조건이 형성되었으며, 더 많은 강수량이(10-40mm) 기록되어 유체에 필요한 토양의 수분을 증가시켰다. 더 먼 지역으로 갈수록, 겨울 작물 재배지역의 봄철 강수량은 평년대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절에 적합하지 않은 때이른 봄철 가뭄현상 이후에 생육전망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소량의 강수량(10 mm 미만)이 Hunan, Jiangxi, Zhejiang의 쌀 생산지역에서 관측되었으며, 논에 적당한 수분을 유지시켜 주었다. 한편, 봄철 가뭄은 Fujian, Guangdong, Guangxi과 같은 지역에서 지속되었다. 겨울 작물 재배지역의 경우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남중국 지역의 경우에는 평년대비 5°C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호주: 남부 퀸즐랜드에서는 넓게 산발적으로 내린 비(3-15mm)가 국지적으로 야외 농작업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주요 농업재배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형성되었지만 면화와 수수의 수확작업에는 최소한의 지연만을 가져왔다. 북부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더욱 지연일수가 길어졌으며 더 많은 양의 비(5-25 mm)가 내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비가 내린 탓에 여름작물의 수확은 지연되었지만, 다가올 가을 밀 파종에 앞서 토양 수분이 증가되었다. 남부지역으로 갈수록, 흙뻑 내린 비(10-5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남동부 호주에 많이 내렸으며, 가을철 밀, 보리, 카놀라의 파종에 앞서 추가적인 토양 수분을 충족시켜주었다. 한편, 밀 벨트지역인 서부 호주에서는 산발적으로 내린 비가 남부 재배지역에 한정되어 기온이 평년대비 1-2°C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부와 동부 호주의 경우 평년대비 기온이 1-2°C 정도 더 높게 관측되었다.

■ 아르헨티나: 중부 아르헨티나에서는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으며, 여름작물의 수확은 지연되었지만 다가올 겨울철 곡물을 위한 수분을 충전하는데는 도움이 되었다. 동부 Cordoba, 남부 Buenos Aires 지역의 총 강수량은 100mm를 초과하였으며, 비의 양은

15-50mm범위를 나타냈다.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2-5°C가 높았으며, 며칠 동안 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초반에 이르렀다. 북부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상조건이 팽배하였으며, 늦여름 나타난 고온현상(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이 많은 비가 내리는 기간에 배치되었다(주간 누적 강수량은 10-135mm). 가장 많은 비(50mm 이상)가 내린 지역은 Chaco와 Formosa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면화 수확 조건이 악화되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4월 16일 기준, 해바라기 수확률은 97%p로 전년동기 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21%p, 33%p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 따뜻하고 비가 내리는 날씨는 중부와 남부의 브라질에서 재배중인 옥수수와 다른 2기작 여름작물의 생육조건에는 좋은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농업지역인 Mato Grosso에서 Rio Grande do Sul의 경우 강수량이 25mm가 기록되었으며, 국지적으로는 100mm가 넘는 지역도 있었다. 비를 동반한 여름철 더위(낮 최고기온이 20°C 중반에서 30°C 초반)가 빠른 성장속도를 가져왔다. 동부 농업지역에서는 더욱 건조한 날씨가 팽배하였으며, 동부 Parana에서 동부 연안을 따라서 계절에 적합하지 않은 따뜻함(주간 기온이 평년대비 평균 2°C 높음, 기온이 20°C 후반에서 30°C 초반)이 더욱 습한 농업지역에서 관측되었다. 남동부지역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야외 농작업에 도움을 주었지만 시즌 후기 성장중인 사탕수수와 커피의 수분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북동부 연안에서 재배중인 사탕수수와 기타 관개작물의 경우에도 역시 강수량이 한정적이었다. 연중 동일한 기간에 강수량은 증가하였지만 계절적으로 필요한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